



총 15억 상금 '제네시스 챔피언십' 8일 개최
 국내 최대 상금 규모의 한국프로골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8~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에서 개최된다. 4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상금인 총 15억원(우승상금 3억원)과 ▲제네시스 GV80 ▲미국에서 열리는 '2021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020 더 CJ컵@새도우크릭' 출전권 등의 혜택을 걸고 양용은 등 120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겨룬다. /제네시스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참가 사전등록

오늘부터 30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5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 분야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개최되는 행사다.

행사는 11월19일~2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며, 인천항만공사와 연합투스가 공동 주관해 열린다.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해양 및 항만 전문가들이 모여 ▲항만과 도시의 발전방향

▲코로나19 시대의 해양수산 산업 변화 ▲남북물류 협력 전략 ▲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과 해양디지털통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지향적 해양관광 생태계 구축 전략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 최대의 항만 운영회사인 PSA International의 Tan Chong Meng 대표, 세계 최대 해운 선사인 Maersk Line의 Ditlev Blicher 아시아태평양 양본부 대표, 대한민국 HMM의 배재훈 대표가 기조연사로 참석해 대한민국 해양산업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해양강국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양기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오늘 공식 출범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5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설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임 원장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이 선임됐다. 노 원장은 한국고용노동사관계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다.

그간 청소년과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 교육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으나, 총괄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독자적인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원 출범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용수 기자



로레알코리아, 정암미용고에 장학금 후원

로레알코리아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아름다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유일한 뷰티 전문 고등학교인 정암미용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했다고 4일 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로레알코리아는 정암미용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두피, 모발 진단기 등 실습에 필요한 공용 물품을 기부한다.

/로레알코리아

유튜브 '뒷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박 상 오 변호사의 엔터테인먼트 LAW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이른바 '뒷광고(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를 한 여러 유튜버들을 폭로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3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한 여자 먹방 유튜버는 위 폭로 이후 은퇴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뒷광고'는 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뒷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등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품/서비스를 협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청자(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주들은 자사 상품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원하고 '실제 사용 후기'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마케팅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뒷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해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뒷광고를 할 경우, 사업주 등이 막대한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종래에는 주로 '블로그' 등과 관련해 뒷광고가 문제됐으나, 최근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뒷광고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SNS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와 관련해 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③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할 것 등의 기준들을 준수하였을 때 광고주나 유튜버 등이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개정 심사지침은 어떤 경우에 위 ① 내지 ③의 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위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광고시장 역시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뒷광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긴급재해에 시민 구한 의인 3명 'LG의인상'

LG복지재단

김태섭·진창훈·남현봉 씨 선정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한 영웅들이 새로운 LG 의인으로 선정됐다.

LG복지재단은 김태섭 경장과 진창훈 씨, 남현봉 씨 등 3명에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장은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으로, 지난달 1일 신혼여행지인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파도에 휩쓸리는 관광객 2명을 아내에게 전해듣고는 스노쿨링 장비와 오리발을 이용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에 성공했다. 피해자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김 경장은 "수중 사고 발생 시 증거물을 찾는 수중 과학수사 업무를 맡고 있어 평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당시 파도가 높고 관광객이 의식을 잃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진 씨는 지난 8월 29일 새벽 거주하



김태섭 경장

진창훈 씨

남현봉 씨

/LG

는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가운데 달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본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해 6층 창문 틈에 매달려 있던 학생을 구조했다. 이후에도 구조할 아픔을 기다리다가 구조대원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벗어났다.

남 씨는 지난 8월 18일 군산 옥돌해변에서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을 듣고 고무보트가 뒤집힌 것을 발견한 직후 100여미터를 헤엄쳐 한 남성을 구해내 의인으로 선정됐다.

LG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시민들을 구한 의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LG 의인상'은 2015년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했다.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수상 범위를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선함과 봉사를 한 시민들까지 확대했고,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모두 136명이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신규 임용 △재해보상정책과 김정민

◆충남 논산시 ◇4급 전보 △친절행정국장 박찬해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진수 ◇5급 전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5급 승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동진 ◇과편 △전국시정연구추진협의회 임승택

부음

▲오세순씨 별세, 여경구(한화생명 경인지역본부장)씨 모친상=4일, 남양주 나눔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장지 강원도 철원군 목련공원

▲최현섭(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생태학회 회장)씨 별세, 최수창(알레그로 마이크로시스템 수석 디자인 엔지니어)-최수만(에스씨케이 상무)-최수영(산업디자인

너)씨 부친상=2일 오후 6시5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40분, 장지 경기도 남양주시 천주교소화묘원 ▲신분순씨 별세, 박경화·박정원·박진선(아트엠디자이너)·박준현(화성그린환경센터 운영조장)씨 모친상, 강동식(데이터뉴스 부장)·최덕인(동양에프앤씨 부장)씨 장모상, 이소영씨 시모상=3일 오후 3시50분, 광명 성애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